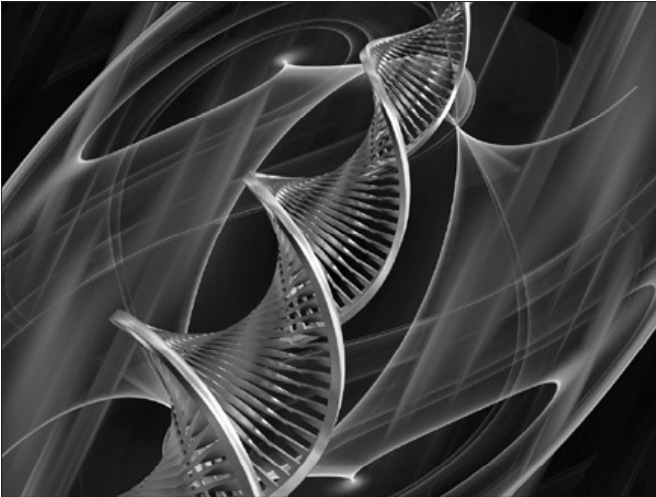


# 정크 DNA 변형에 이르게 하는 문

| 브랜든 머피 | 안성윤 옮김 |

이 글은 의식의 실재와 본질에 대해 영적 과학적 정보를 전하는 브랜든 머피가 「지금 여기」 독자들을 위해 보내준 것입니다(편집자 주).



오늘날 심신연결성에 대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1940년대 초부터 암시, 목적, 믿음의 힘을 이해하기 위한 미생물학적 토대가 발달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곧 출간될 『거대한 환영: 과학과 영성의 융합』(The Grand Illusion: A Synthesis of Science and Spirituality)에 실린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에 설명할 수 없었던 인간 계놈의 ‘자연적’인 변환과 그것에 따른 생리적, 심리영성적인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크Junk’다

대부분의 「지금여기」 독자들도 알다시피 DNA ‘텍스트’의 대부분은 단백질과 효소를 부호화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 과학자들도 그러한 DNA 텍스트의 용도를 모른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현명하게도 아예 그것을 ‘정크 DNA’라고 이름 붙였다. 그런 정크 DNA는 얼마나 될까? 약 95~98%이다. 자연이 그 정도로 낭비적일까 싶겠지만 어떤 과학자들은 무려 99%로 간주한다). 이런 소위 ‘쓸데없는’ DNA는 우리의 기본적인 물리적 형태를 만드는 데에 관여하지 않기에 최근까지도 그것의 목적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정크’ DNA의 많은 부분이 이동성유전인자(트랜스포존과 레트로트랜스포존), 달리 말해서 ‘점핑 DNA’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다. 점핑 DNA는 특정한 유전코드를 고쳐 쓰고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하며, 전체 DNA 뉴클레오타이드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sup>1)</sup>

계놈의 비-단백질-코딩 영역에서 다른 중요한 부분들은 ‘부수체 DNA’라고 알려진 직렬로 반복하는 배열로 구성된다. 미생물학자 윌리엄 브라운(William Brown)은 특정한 형태의 배열을 통해 부수체 DNA

는 소위 ‘형태장’과 상호작용한다고 믿는다. 이를테면 다양한 형태들은 ‘형태장’과 특정한 공명이 있어서 다른 정보 프로그램들에 동조할 수 있다. 부수체 DNA도 개인마다 특유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별개의 독특한 형태발생론적 패턴에 동조한다.<sup>2)</sup>

점핑 DNA와 부수체 DNA 모두 형태장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식상태의 변화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부수체 DNA의 반복하는 배열의 수를 확장하는 능력은 DNA의 정보반용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프랙탈 안테나로서, DNA는 진공/에테르(이 문맥에서는 영점장/내재된 질서/시공간과 동의어)와 상호작용해서 의식과 상호작용하는 영점에너지를 변환시킨다. 진공 속의 토션 또는 스칼라포스와 DNA 사이의 상호작용 증가는 확장된 의식과 일치하는 반면에 상호작용 감소는 수축된 자각awareness을 야기한다. 따라서 “DNA의 특정한 모듈식 배열들은 의식적 자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sup>3)</sup>

1990년대 가리아에브Peter Gariaev 박사의 주도 아래 러시아 언어학자들로 구성된 팀은 ‘정크’ DNA 안의 유전코드가 인간 언어와 사실상 똑같이 일정한 문법과 사용법을 따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정크’는 지능, 목적, 의미를 시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근본주의적 진화론에 의해 무시된 관점). 이 획기적인 연구에 뒤이어 1990년에 델로우Jeff Delrow는, DNA의 4개의 뉴클레오타이드(A, T, G, C)가 내재적으로 인간의 언어 패턴과 밀접하게 연관된 프랙탈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했다.<sup>4)</sup> 논-코딩 DNA의 조각들 내부에서, 과학자들은 명백한 뜻이 없고, 어느 방향으로 읽어도 같은 단어나 문장인 회문回文이 끝없이 반복되는 배열들을 발견했다.<sup>5)</sup>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우리 DNA 내부의 문법적, 통어적인 구조—바로 그 방대한 ‘정크’ 부분!—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

다면 동물 세계의 원시적 언어 이전 커뮤니케이션에서부터 인간 언어에 이르기까지 선형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졌다는 개념은 왜 주목받지 않았을까? 그것은 에테르/진공/내재적 질서에서의 양자 도약이기 때문이다.<sup>6)</sup>

가리아에브 팀의 선구적인 DNA 연구는 최면의 힘을 설명한다(어쩌면 대부분의 다른 초자연적 현상 또는 초 커뮤니케이션 포함). 가리아에브 팀이 내세운 기본 가설 중 하나는 ‘계놈에는 의식과 유사한 능력이 있어서 DNA 언어가 의미론적으로 의미 있는 구절들을 만들어 내고 그의 인식을 돕는다’는 것이다.<sup>7)</sup> DNA 염기쌍의 구조와 언어의 구조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증명됐듯, 우리는 단어와 문장만 가지고도 우리 자신의 유전을 바꿀 수 있다. 적절한 주파수가 사용된다면 DNA는 “언제나 언어로 변조된 레이저파와 무선파에 반응할 것이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왜 확인, 자생 트레이닝, 최면 및 기타 유사한 것들이 사람과 그 신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sup>8)</sup>

최면으로 유전적 변화를 유도한 유명한 케이스 중 하나는 영국 서섹스 지방의 퀸빅토리아 병원에 1951년도에 기록되어 있다. 브로크 Brocq 병에 걸린 한 초대 소년의 치료 사례인데 소년의 피부는 건조하고 파충류처럼 딱딱했으며 쉽게 부서지고 피가 났다. 마취사이자 최면술사인 메이슨 Albert Mason 박사는 최면 암시를 사용하여 몇 주 만에 그 병을 치료하였다—당시로서는 기적적인 일이었다. 브로크 병은 유전 질환이므로 그 병을 치료했다는 것은 메이슨이 소년의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재프로그래밍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당시 과학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소년의 피부에서 딱딱한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부드럽고 건강한 살이 올라왔다. 오늘날 우리

는 올바른 빛과 소리 주파수, 그리고 말을 사용함으로써, 일부의 이동성 DNA를 활성화하여 계놈의 특정한 부분들을 재-코드화하고 그림으로서 가장 근원적인 생물학적 수준에서 물리적 변환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고 있다.

## DNA, 워홀 그리고 토션장

1984~1985년 동안 가리아에브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 그는 테스트 튜브 안에 있는 생체의 DNA 샘플이 간섭광을 끌어당기고 이용해서 DNA 나선을 따라 나선형을 그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것만으로도 패러다임을 바꾸는 놀라운 발견이었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DNA 샘플과 모든 기구를 치운 후에도 마치 DNA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광자가 회전을 계속한 것이다. ‘DNA 잔상 효과’라고 명명된 이 현상은, 새로운 스칼라/토션장 구조가 진공/에테르에서 야기되었으며 DNA가 없는 상태에서도 빛을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했다!

이 효과는 한 달 가량 지속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새로운 필드 구조가 뛰어난 지속성과 안정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잔상을 질소가스로 날려 보내고 난 후에도 5~8분 내에 잔상이 되 돌아온다(토션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리아에브와 그의 동료들은 “DNA 분자에 의해 발생된 음파는 이 실험에서 기록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DNA가 빛을 흡수·방출할 뿐 아니라 (이는 잘 알려진 바이다) 라디오 주파수와 음자phonon까지도 흡수·방출함을 시사한다.<sup>9)</sup>

DNA는 작용하는 매순간마다 소리와 빛을 이용하지만, 그보다 시

공간에 ‘구멍을 뚫어서’ 시공간 분야에 창문을 연다. 다시 말해 DNA는 우주 구조에 ‘자화磁化된 워홀’—공간과 시간 밖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우주 분야들 사이의 터널 커넥션—을 만든다. DNA는 정보의 작은 조각들을 끌어당겨서 우리의 의식으로 넘긴다.”<sup>10)</sup> 우리 대부분은 이 과정을 직관 혹은 정신적 통찰로 알고 있다. 보통 인간의 기억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은 뇌가 아니라 몸을 감싸고 있는 에테르/내재/시공간 필드 구조(일명 오라장auric fields)에 저장된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sup>11)</sup>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들의 원인이 되는 시공간/에테르를 차지하는 에너지가 비틀림/나선형 토션 에너지라는 가설을 세웠다. 앞서 언급한 ‘자화된 워홀’은 ‘토션장’ 또는 ‘소용돌이’라고 할 수 있다. 토션장은 에테르/시공간에서 자립하는 소용돌이로, 본질적으로 비전자기적이다. 하지만 빛 같은 전자기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회전을 하면서 소용돌이는 우주/에테르 구조에서 나온 광자 또는 가상 광자를 자극할 수 있다. 그리고 정적인 토션/스칼라장은 내부에 빛을 저장하고 이용할 수 있다(DNA 팬텀 효과에서 볼 수 있듯이).<sup>12)</sup>

소리에 기초한 리제네틱Regenetics 힐링과 전환법의 개발자인 솔 러크만Sol Luckman은 기/프라나/오르곤이 빛을 기초로 한 토션장의 효과라고 여긴다. 그는 『의식 치유Conscious healing』에서 토션에너지를 “시간 속에서 자신을 경험하는 우주적 창조적 의식 또는 부분 공간 에너지(에테르)…, 잠재적 DNA 트랜스포존과 상호작용하고 수정하는 ‘생명파life-wave’ 형태의 토션에너지...는 인간 의식과 생리학의 진화 뒤에 있는 추진력이다”라고 설명한다.<sup>13)</sup>

토션, ‘제5의 힘’의 발견이라고 인정된 첫 번째 연구는 1800년대 후반 러시아의 미슈킨Myshkin 교수에 의해 행해졌다.<sup>14)</sup> 아인슈타인의

동료인 카르탕Elie Cartan 박사가 1913년 공간 시간의 구조를 관통하는 이 힘의 비트는 움직임을 가리켜 처음으로 ‘토션’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으나 그의 업적은 사실상 아인슈타인 이론들의 성공과 명성에 묻혔다. 1950년대—제임스 왓슨 박사와 프란시스 크릭이 DNA의 나선형 구조를 발견한 시기—선구적인 러시아의 과학자 코지레브Nikolai A. Kozyrev 박사(1908~1983)는 시간처럼(DNA에 상이점이 없는), 성스러운 기하학적 나선모양으로 흐르는 이 토션 에너지의 존재를 증명해냈다. 이 점에 대해서는 『The Grand Illusion Vol.1』에서도 상술한 바 있다.<sup>15)</sup> 러시아 과학자들은 1990년대에만 해도 이 주제에 대해 수천 편의 논문을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물리학자 나심 하라메인Nassim Haramein이 라우처Elizabeth A. Rauscher 박사와 함께 아인슈타인의 토크와 코리올리 효과를 포함한 장 방정식을 다시 연구했다.

## 토션장, 정신적 의도 그리고 치유

만약 당신의 ‘영혼’이 토션장 혹은 우주구조 속의 소용돌이(또는 예언자, 주술사들이 말한 복합적으로 포개진 소용돌이의 구조)라면 당신의 의식은 당연히 육신이 소멸한다 해도 살아남아야 한다. 의식은 당신이 육신을 얻기 전에도 에테르/진공/시공간/내재적 질서/영점장에서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리학자 울프Fred Alan Wolf의 관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진공의 우주공간을 ‘영혼의 집’으로 보며 여기에서 물질세계가 태어난다고 여긴다.<sup>16)</sup>

흥미롭게도 제나디 쉬포브Gennady Shipov와 부르크하르트 하임Burkhard Heim의 연구는 “토션 발생기를 통해 이른바 심령가가 보여

주는 모든 ‘현상’을 재현할 뿐 아니라 그 어떤 심령가도 구현하지 못했던 효과까지 나타낼 수 있음을 규명했다.”<sup>17)</sup> 본질적으로 시공간계에 제한되지 않은 이 “초월적인 힘”(토션/스칼라 파의 형태에서 빛의 속도보다 수십 억 배 빠르게 작동한다)은 많은 연구에서 설명된 원격치료 현상과 국소적 단거리 얽력 효과 등을 설명할 수 있다(정신-물질 상호작용에 관한 좀 더 포괄적인 설명은 『The Grand Illusion vol. 1』에서 볼 수 있다).

세포생물학자 글렌 라인Glen Rein 박사는 화, 두려움 및 유사 감정들이 DNA분자를 수축, 압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발견했다. 한편 즐거움, 감사, 사랑 같은 감정들은 압박된 DNA를 풀어준다고 했다. 이 효과는 그런 감정을 내보내는 ‘발신자’로부터 1/2마일까지 떨어져 있어도 유효했다.<sup>18)</sup> 몇 년 전 러시아에서 인간을 타겟으로 한 원격 영향력 실험들은 라인의 발견의 전조가 되었으며 인간의 의도만으로 먼 거리에 있는 인간 타겟의 생리적, 의식적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고 텔레파시를 보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sup>19)</sup>

이와 관련하여 라인이 실행한 다른 실험들에서, 일관된 심전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자유자재로 DNA 샘플들(몸에서 추출되지 않은)을 감거나 풀 수 있었던 반면 일관되지 않은 심전도를 나타낸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았다. 또 사랑에 기반한 감정을 그저 느끼는 것만으로는 DNA 샘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DNA를 바꿀 의도가 있어야 했다. 이 효과는 류 차일더Lew Childre의 실험에서 1/2마일 떨어진 지점까지 확인되었다. 러시아의 치유사 발레리 사디린Valerie Sadyrin이 참여한 다른 실험에서는 수천 마일 떨어진 러시아(라인의 실험 장소는 캘리포니아였다)에 있는 사디린에게 똑같은 효과가 재현되었다.<sup>20)</sup> 이는, 일관된 전자기적 심장 에너지가 비록 몸 안에서 국소적으로 작



용하기는 하나, 비국소적으로 작용하는 비전자기적 요소(토션/스칼라)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자와 치료 받는 자가 (시공간/에테르/내재된 질서를 통해) 얽히게 앓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DNA는 공시간space-time과 시공간time-space/에테르 사이의 생물학적 ‘다리’인 ‘토션 안테나’이다.

따라서 라인의 연구는 토션을 삶의 긍정적 감정—특히 개인적·집단적인 진화를 촉진하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관 짓는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감정만이 DNA를 풀어주도록 촉진시켜서, 전령RNA가 치료를 위한 코드에 접속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 상태는 DNA 나선을 압박해서, “진화와 치료에 필요한 유전적 정보에 접속하는 것을 강하게 억제한다.”<sup>21)</sup>

## DNA를 활성화하는 소리

최근 우리는 도시Larry Dossey 박사가 명명한 소위 ‘3세대Era III’의 학에 진입했다. 3세대 의학은 치유와 변혁의 소리 영역(시-공간/에테르/내재적 질서) 속의 생물에너지 의식을 중시하는 반면 ‘2세대’ 후생유전학은 주로 우리의 시공간의 빛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고, ‘1세대’는 근시안적으로 물리-화학적 사항에만 기반을 두었다—거대 제약회사에게는 요긴할 것이다.<sup>22)</sup> ‘3세대’는, 앞서 러시아 사람들의 원격 영향 실험과 라인의 최근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식이 근본적으로 비국소적이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거리에 상관없이 당신의 생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sup>23)</sup>

가리아에브 팀이 보여주었듯이, 소리와 빛은 유전 코드를 고쳐 쓰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연구팀은 심지어 한 종種의 DNA 정보패턴

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다음 다른 종으로 재송신시켜 개구리 배아胚를 도롱뇽 배아胚로 변환시켰다. 그 도롱뇽은 짝짓기를 하여 새끼 도롱뇽까지 낳았다.<sup>24)</sup>

특정한 소리 주파수: 여기에 리크만의 DNA 활성화 방법의 힘이 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수학적으로 구조화된 DNA가 고대 솔페지오 스케일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DNA가 솔페지오 스케일과 공명하는 것이다. 수학자 마르코 로딘Marko Rodin과 빅터 쇼웰Victor Showell에 따르면, 이 스케일은 온 우주를 구축한다고 한다. 치의학박사 렌 호로위츠Len Horowitz는 “물질의 창조론적 역학은 순수하고 음향적 영혼 안에 근원을 가지고 있다”<sup>25)</sup>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고故 한스 제니 박사의 연구에서 생생하게 나타난다. 제니는 금속판 위에 고체입자 덩어리를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시키자 그 입자들이 자연적으로 특정한 기하학적 형태로 배열되었다. 반면 유동체 속에 갇힌 자유로운 입자들의 진동은 포개진 기하학적 형상, 실제로 플라톤의 입체<sup>26)</sup>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호로위츠의 관점은 물질이 ‘영적’ 영역에서 ‘소리’ 주파수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의 근거는 근본적으로 홀로그램이기 때문에, 물질은 프랙탈적으로 드러난 우주를 구성한다. 즉 플라톤 입체와 같은 기하형태가 서로 포개진 모양이다.

올바른 모음 철펠 기술—가장 중요한 요소—과 528헤르츠의 솔페지오 소리급쇠(최근 발간된 리크만의 책 『Potentiate Your DNA』에 자세히 나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당신의 이동성 유전인자들은 시간-공간/에테르 안에 있는 엄청난 양의 토션에너지를 동력화할 수 있게 된다(리제네틱 메소드로, 잠재적 DNA의 활성화는 강화, 명백한 표현, 설명, 초월의 단계를 통과하면서 상승적으로 일어난다). 리제네

틱 기술의 첫번째 단계인 강화작용(Potentialion)은 특히 528hz의 ‘미’ 음을 사용하는데, 이 음은 분자생물학자들이 유전적 결함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음으로<sup>27)</sup> 간단히 ‘사랑 헤르츠’로도 알려져 있다. 리제네틱 방법의 전체 과정을 끝내고 나면—최소 27개월이 소요—부드럽고 진보적인 쿤달리니 각성과 육체, 정신체, 감정체, 정령체의 치유가 이뤄진다. 알레르기가 사라지고, 오랜 상처가 치유되고, 심각한 질병이 사라지고, 신체가 해독되고, 감정적 짐이 정화되고, 평화와 웰빙의 감각이 발달한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자와 근본적인 상호연결성과, 전전두엽이 깨어난 후, 마지막 과정의 완성과 함께 최대한의 성과에 다다른 발달을 느끼기 시작한다.<sup>28)</sup>

나의 경우, 강화 작용을 마치고 나자 곧바로<sup>29)</sup> 손상된 어깨의 회전관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느꼈다. 그리고 몇 주 내에 상당히 호전되었다. 7개월 뒤, 사실상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고 편하게 옆으로 누워 잘 수 있게 되었다. 실로 12년 만에 가능해진 일이었다. 그동안에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고쳐보기 위해 굳게 다짐하고 노력했어도 차도가 없었다. 강화작용을 하기 전에는 팔을 가슴 앞으로 교차해 흔드는 것도 어깨에 엄청난 통증을 일으켰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는 자연적 해독 작용 또한 경험했고(주로 부비강을 통해), 음식 알레르기 또한 사라지고 있었다.

DNA가 소리굽쇠처럼 행동하는 것 그리고 모음 첸트, 528Hz 솔페지오 주파수와 공명하는 것과 함께, 생명활동을 위한 음속 토션 필드 청사진들(시공간에서) 속의 ‘에리’들은 고쳐졌다. 생물학적 레벨에서, 휴면상태의 코돈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다른 것들은 휴면상태일 동안—점핑 DNA는 더욱 진화된 방향으로 유전자 코드를 재구성하도록 이동한다. 이는 치유 메커니즘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의식 연구가

스티븐 린스테드 Stephen Linsteadt는 “528Hz 주파수에서 DNA구조를 둘러싸고 떠받치는 다발의 물 분자들은 완벽한 육각형을 형성한다.”<sup>30)</sup>고 말했다. 이것은 스스로 강화작용을 하면서 내적인 사이매틱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호로위츠는 이렇게 썼다. “이론적으로, 당신의 신체를 528Hz 주파수로 위상동기 phase-locking화하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 에너지가 당신의 DNA 아미노산 배열에 전달된다. 그러면 DNA 아미노산 배열이 당단백질 매트릭스의 구조수 structured water 안에서 진동하면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생체전기적이고 생물음향학적인 기능까지도 528Hz 주파수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는다.”<sup>31)</sup>

## 신인류?

미생물학자 켈러허 Colm Kelleher 박사는 ‘정크’ DNA를 수년간 연구했다. 그는, 트랜스포존이 진화의 엔진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규모의 급속한 물리적 구조 변화, 나아가 새로운 종의 출현을 촉발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메커니즘은 ‘폭발적인 동시 전환 simultaneous transposition burst’이라고 말한다. 또 비슷한 메커니즘들이 쿤달리니 체험과도 연관 있을 것이라 가정했다.<sup>32)</sup>

쿤달리니—실재하는 물리적 에너지—는 고차원의 의식을 깨우고 신체에 생기를 주고 회복시켜준다. 바이오에너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오컬트 발달에서 쿤달리니의 주요 기능은 평판에 따르면 차크라들을 통과하면서 생기를 주어서 물리적 의식 속으로 유체 이탈 경험을 하게 해준다.<sup>33)</sup> 에테르 레벨에서 차크라 강화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육체적 부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에테르체가 에너지적으

로 육체의 복제판이고 (아스트랄체/멘탈체/영적 에너지와는 달리) 사실상 그 자체로 ‘물리적’ 밀집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은퇴한 이론물리학자 고스와미 Amit Goswami 박사는 『Physics of the Soul』에 서술하길, 쿤달리니 상승은 잠들어 있던 의식의 능력을 일깨워, 육체에 새로운 생명체(에테르체)가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증거가 있다. 쿤달리니를 상승시켜 적절하게 통합시킨 사람들은 특이한 신체 변화를 겪었다(예컨대 몸에 뱀 형상을 하는 결절들의 발달).”<sup>34)</sup> 쿤달리니 경험자들은 플라즈마와 같은 쿤달리니가 척추를 타고 올라와 머리와 크라운 차크라에서 폭발하면서 엄청난 하얀빛이 의식을 감싼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는 지복의 상태다.

이 주제의 연구에서 두드러진 점은 임사체험과 비교해서 DNA와 쿤달리니 활성화의 결과 사이에 비슷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다. 생물 물리학적 변화들과는 별개로 (모든 그룹에 공유된)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높은 수준의 감정이입, 경쟁심과 아상我相 약화, 죽음에 대한 공포의 소멸, 평화와 즐거움의 감각 같은 것들과 깊게 연결되는 경험을 했음을 알렸다. 심각한 질병과 알레르기의 소멸 혹은 자연적 해결은 DNA 활성화, 쿤달리니 각성과 상호관련된 생물 물리학적 변환 카테고리 들어간다. 예를 들어 임사체험자 베네딕트 Mellen-Thomas Benedict는 90분의 임사체험 이전에 치료 불가능한 뇌종양을 가지고 있었다. 임사체험 이후, 종양은 그냥 사라졌다.<sup>35)</sup>

임사체험자들은 임사체험 이후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심령술 능력이 가속화된 것을 발견했다. 『Transformed by the Light』에서 서덜랜드 Cherie Sutherland 박사는 호주 임사체험자 50인의 사례를 연구했는데 최소한 한 명은 임사체험 이후 전혀 의도치 않게도, 텔레파시 능력이 생겨나 근처에 있는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우주적 사랑, 동정, 무조건적인 수용의 힘과 접촉하는 경험은  
많은 임상체험자들에게 강력한 치유 에너지를 제공한다.  
많은 이들이 직업을 버리고 에너지 치료사가 될 정도로  
강력한 치유능력을 얻는다.

고 보고했다.<sup>36)</sup>

케네스 링 박사는 1990년대에 임상체험자들이 쿤달리니 각성을 경험한다는 가설을 세웠고 오메가 프로젝트의 개념을 입증하는 인상적인 증거를 제시했다.<sup>37)</sup>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참 모습은 불멸의 ‘영혼’ 또는 무한한 의식과 우주를 이루는 부분이라는 것을 밝혀서, 임상체험이 자연적으로 ‘불완전한 신체’(두 번째 차크라의 에너지 부족)의 봉인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분리 의식’, 자기혐오, 죄책감 같은 개인적 문제를 치료할 것이다. 확실히 우주적 사랑, 동정, 무조건적인 수용의 힘과 접촉하는 경험은 많은 임상체험자들에게 강력한 치유에너지를 제공한다. 많은 이들이 직업을 버리고 에너지 치료사가 될 정도로 강력한 치유능력을 얻는다.

이것은, 전자기 에너지 및 토션 포스의 조정과 전달에 관여했던 DNA 부분들이 이전까지에는 휴면기에 들어 있다가 이제 활성화되었음을 시사한다. 1996년 켈러히는 활성화된 T세포에서 DNA를 복제하여 ‘실에 펜 구슬처럼 배열된’ 트랜스포존 배열들의 텐덤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대규모의 종 분화種分化和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하리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구조였다. 켈러히는 임상체험을 했거나 오랜 기간 명상을 한 사람들은 트랜스포존 카세트의 높은 전사 레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sup>38)</sup>

임상체험 사례연구들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많

은 임사체험자들은 새로운 종류의 인간인 것처럼 보인다. ‘보통사람’보다 훨씬 형이상학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유전적, 초자연적으로 ‘켜져’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임사체험자들은 쿤달리니 각성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수준의 직관적 활성화를 보여줬다.

## 결론 및 미래 비전

2003년 DNA 원소(‘부호화’) 백과사전 게놈 연구 프로젝트 Encyclopedia of DNA Elements(“Encode”) genome research project가 시작됐다. 미국, 영국, 스페인, 싱가포르, 일본에 걸쳐 32개의 연구소에서 4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모인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연구 중 가장 큰 인간 게놈 연구 프로젝트이다. 2012년 9월 초, 인코드 프로젝트의 과학자들은 인간 DNA를 구성하는 30억 쌍의 유전코드를 전부 분석하고 난 뒤, 그것이 널리 믿어진 것보다 훨씬 더 생물학적으로 활동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80%는 사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비-단백질-코딩 ‘정크’ DNA는 전혀 정크가 아니라고 밝혀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의 논의의 맥락에서, 과학자들은 세포 내에서 유전자들이 켜지거나 꺼질 때를 조절하는 DNA의 부분들인 4백만 개의 ‘스위치 유전자’들을 확인했다. 이 유전자들은 그들이 조절하는 실재 유전자와 많이 다를 수 있다(풀려진 DNA섭유에 관한 것이라면). 여러 스위치들은 다양한 질병과 장애의 위험 레벨의 변화들에 연결되어 있고<sup>39)</sup> 후생학은 국소적 환경적 요인들(스트레스 포함)이 고유의 유전적 결합들(모든 질병의 5%만 차지)보다 특정한 유전자의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최종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동성 DNA/트랜스포존—98% ‘정크’ DNA의 절반을 차지—이 4백만 개의 ‘스위치 세포들’의 일부 기능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덧붙여 이동성 DNA는 (만약 브라운이 옳다면 부수체 DNA 또한) 에테르/시-공간/내재적 질서 안의 의식과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소리 기반의 리제네틱스 메소드와 같은 3세대 메타제네틱 양식—치료사가 치료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져도 가능한—은 치료사와 환자 사이의 거리에 상관없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시공간 영역에선 의식이 점유하고 거리는 무의미하다.

샤머니즘, 후생학, 사망학, 정신의학, 분자생물학, 최면, 신체운동학, 신비주의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의 혁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는 잠재된 점핑 DNA를 효과적인 개인 변형과 의식의 진화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4가지의 방법을 확인했다: 최면, 모음 첸트와 슬페지오 주파수를 통한 DNA 활성화, 쿤달리니 각성, 임사체험이다(뒤세 가지 방법은 명백히 쿤달리니 활성화를 내포하며, 자아의식의 다층구조로 더 깊숙이 도달한다). 어찌됐든 지금의 논의는 이런 천체물리학적 과정에 대한 것이 아니다. 천체물리학적 과정은 지구 미생물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우리 개개인은 천체물리학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다. 지면 관계상 상세한 논의는 여기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향식의 다윈의 ‘DNA 최우선’의 소멸과 함께, 우리는 유전적 성질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가 정해진 것처럼 변경 불가능한 일이라는 낡은 개념을 버릴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여기에서 다뤄진 다양한 연구들은 통제적으로 유전자발현을 바꿀 수 있는 모음과 목표된 빛과 소리 주파수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의식



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다음에는, 유전자 발현을 바꿀 수 있다(다소 영구적으로). 인류는 더 이상 무작위의 ‘자연 선택’에 휘둘리는 힘없는 다윈식 ‘고기덩어리 컴퓨터’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자연이 버리지 않은 ‘정크’에 얼마나 감사한가!(끝) 

- 1) Gage, F.H. and A.R. Muotri, “What Makes Each Brain Unique”, Scientific American, March 2012
- 2) Brown, W., “Morphic Resonance and Quantum Biology”, NEXUS 2012;19(2)
- 3) Ibid.
- 4) Luckman, S., Potentiate Your DNA, Crow Rising Transformational Media, USA, 2010–11, p. 116
- 5) Narby, J., The Cosmic Serpent: DNA and the Origins of Knowledge, Phoenix/Orion Books, London, 1999, p. 100
- 6) Pinchbeck, D., 2012: The Return of Quetzalcoatl, Jeremy P. Tarcher/Penguin, 2006, p. 174
- 7) Miller, Richard Alan, Iona Miller and Burt Webb, “Quantum Bioholography: A Review of the Field from 1973 – 2002”, 2002, <http://tinyurl.com/7nb72tf>
- 8) Fosar, G. and F. Bludorf, “Spiritual Science: DNA is influenced by words and frequencies”, <http://tinyurl.com/85npbn2>
- 9) Gariaev, P.P., M.J. Friedman and E.A. Leonova– Gariaeva, “Principles of Linguistic–Wave Genetics”, DNA Decipher Journal 2011 Jan; 1(1):11–24, <http://tinyurl.com/76shk6a>
- 10) razyna Fosar and Franz Bludorf, from their book Vernetzte Intelligenz, quoted at <http://tinyurl.com/qr78vw>
- 11) I have proven this beyond any rational doubt in TheGrandIllusionVol.1 (TGI1).
- 12) For in–depth discussion of torsion as it relates to psi phenomena, see TGI 1.
- 13) Luckman, S., Conscious Healing, Booklocker Publishing, Bangor, Maine,

- 2006, 1st edition, p. 219
- 14) Yurth, D.G., “Torsion Field Mechanics: Verification of Non-local Field Effects in Human Biology”, 5 December 2000, <http://tinyurl.com/6u8f69o>
  - 15) Luckman, *Conscious Healing*, op. cit., p. 52. See also M.D. Jones, *PSIence*, New Page Books, New Jersey, 2006, pp. 183-6
  - 16) *The Soul and Quantum Physics: An interview with Dr. Fred Alan Wolf*. [www.fredalanwolf.com/myarticles/Soul%20and%20death%20Q&A.pdf](http://www.fredalanwolf.com/myarticles/Soul%20and%20death%20Q&A.pdf)
  - 17) Nowak, A.M., “Torsion Fields – Theory of Physical Vacuum – Shipov and Heim”, [tinyurl.com/yek8qcx](http://tinyurl.com/yek8qcx)
  - 18) Rein, G. and R. McCraty, “Local and Non-Local Effects of Coherent Heart Frequencies on Conformational Changes of DNA”, *Institute of HeartMath*, 1 January 2001, <http://tinyurl.com/6m9h94r>
  - 19) See S. Ostrander and L. Schroeder, *Psychic Discoveries Behind the Iron Curtain*, Bantam, 1971, 2nd pr.
  - 20) Rein, G., “Effect of Conscious Intention on Human DNA”,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Forum on New Science*, Denver, Colorado, October 1996, <http://tinyurl.com/79mw5c7>
  - 21) Luckman, *Potentiate Your DNA*, op. cit., p. 92
  - 22) *Ibid.*
  - 23) *A Conversation about the Future of Medicine*, [www.dosseydossey.com/larry/QnA.html](http://www.dosseydossey.com/larry/QnA.html)
  - 24) Fosar and Bludorf, *Vernetzte Intelligenz*, op. cit., quoted at <http://tinyurl.com/qf78vw>
  - 25) Horowitz, L.G., “Why Some People Just Can’t Get Along”, *Veritas* 2011-12; 2(6), <http://www.theveritasmagazine.com>
  - 26) See chapter 6 of my forthcoming book *The Grand Illusion: A Synthesis of Science and Spirituality*, vol. 1 (Balboa Press), for more detail on this.
  - 27) Luckman, *Conscious Healing*, op. cit., p. 122
  - 28) <http://www.phoenixregenerics.org/activations/elucidation>
  - 29) See my article “Diary of a DNA Potentiator” in *New Dawn*, no. 133, July-August 2012, and an expanded, updated version at my website <http://www.brendandmurphy.com>.
  - 30) Linsteadt, S., “Frequency Fields at the Cellular Level”, <http://tinyurl.com/6u8f69o>

com/ 82lsf5f

- 31) Horowitz, op. cit.
- 32) Grosso, M., Experiencing the NextWorld Now, Paraview/Pocket Books, New York, 2004, p. 163
- 33) See A.E. Powell, The EthericDouble, The Book Tree, San Diego, CA, 2007, chapter 13 (first pub. in 1925)
- 34) Goswami, A., Physics of the Soul, Hampton Roads Publishing Co., Charlottesville, VA, 2001, p. 246
- 35) See P.M.H. Atwater, The Big Book of Near-Death Experiences, Hampton Roads Publishing Co., Charlottesville, VA, 2007, pp. 36-7
- 36) Sutherland, C., Transformed by the Light: Life after near-death experiences, Bantam Books, 1992
- 37) Ring, K., The Omega Project: Near-Death Experiences, UFO Encounters, and Mind at Large, William Morrow & Co., New York, 1992
- 38) Grosso, op. cit., pp. 163-4
- 39) Walsh, F. DetailedMapofGenomeFunction, [www.bbc.co.uk/news/health-19202141](http://www.bbc.co.uk/news/health-19202141)

- 이 글은 『Junk DNA: Our Interdimensional Doorway to Transformation』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래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브랜든 머피**(Brendan D. Murphy) | 곧 발간될 『The Grand Illusion: A Synthesis of Science and Spirituality(Vol's 1&2)』을 집필한 호주 태생의 신예 저자.

여러 해에 걸친 이 획기적인 연구는 (2012년 후반에 1권 출간 예정) 의식과 실재의 본질에 대한 영적·과학적 핵심 정보를 제공하여 인류의 각성을 촉진할 것이다.

페이스북 팬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의식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www.facebook.com/The.Grand.Illusion.Books](http://www.facebook.com/The.Grand.Illusion.Books)

역자 | **안성윤** | 「지금여기」 번역위원. 미국 위스콘신주 노틀담고등학교 수료. 미국검정고시 통과. 일본 조치대학 국제교양학부 재학.